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Investment Strategy
2026.7.29

Mirae Asset Research AI

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김주연
Jooyoun.kim@miraeasset.com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미국증시, 반도체주 급락에도 순환매 속 '혼조'

- 미국증시 혼조: 다우 +1.03%, 나스닥 -0.22%
- 반도체 급락에도 순환매..S&P500 동일가중 지수 '최고가'
- FOMC 회의 시작 '금리 동결' 전망 우세

Summary

미국증시 지수별 혼조 마감

7월 28일 화요일(현지시각) 뉴욕증시는 지수별로 혼조 마감.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복구하는 합의에 근접하고 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WTI 기준 배럴당 80달러선 아래로 떨어졌고 유가가 하락하며 이날부터 열린 FOMC에서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보다 높게 전망, 시장 심리를 대체로 안정시킴. 반도체주가 여전히 급락 구간에 머물렀으나 반도체를 제외한 금융, 헬스케어 등 여타 업종군으로의 순환매기가 확산, 다우지수는 1% 이상 상승했고 S&P500지수도 상승권에 마감.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1.03% 상승한 52,747.32에 마감했고, S&P500 지수는 0.21% 상승한 7,428.78에 거래를 마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49% 하락하는 등 반도체주가 크게 하락했지만 소프트웨어, 여행 플랫폼 등의 여타 종목군이 상승한 영향으로 나스닥 지수도 낙폭을 상쇄, 0.22% 하락한 24,875.91에 마감. 나스닥100 지수는 0.99% 하락했지만 러셀2000 지수는 0.20% 상승 마감. 변동성 지수 VIX는 2.46% 하락한 18.21에 마감.

(다우 +1.03%/ S&P500 +0.21%/ 나스닥 -0.22%/ 러셀2000 +0.20%)

반도체주 급락..순환매 뚜렷

나스닥 100은 반도체주 급락의 여파로 고점 대비 10% 하락을 앞두고 기술적 조정 국면 진입을 코 앞에 두고 있음. AI 관련 반도체주에 대한 차익실현은 그동안 반도체 기업들에 있어 강력한 '돈 줄'이었던 빅테크들이 막대한 자본 지출에도 이렇다 할 수익으로의 전환을 빠르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강력한 투자가 결국 무한하지 않다는 경계감이 확산되며 시작. 여기에 중국 CXMT가 상장 이후 조달한 자금을 통해 생산능력을 공격적으로 확대, 메모리 가격 하락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또 중국 국영 기업이 핵심 반도체 제조장비(DUV)를 양산하기 시작했다는 보도 등이 중국 반도체의 자생력과 저력에 대한 경계감으로 이어져 반도체주 투자심리를 뒤흔든 것으로 해석. 반도체주 투자심리에는 이번주 메타 플랫폼스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으로 이어질 빅테크 실적 발표와 여기서 나올 자본지출(Capex), 투자 대비 수익성에 대한 언급 등이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글로벌 자금 시장 내에서 연쇄적인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주에서 이탈한 자금이 가치주 중심의 전통 산업주와 헬스케어 등 이외 업종군으로 유입되는 순환매 흐름이 뚜

렷하게 포착되는 점은 긍정적. 실제 지수 구성 종목 500 종목에 모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동일가중 S&P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매기 확산 트렌드를 뚜렷하게 보여줌.

유가 안정..WTI 80달러 하회

콘퍼런스보드가 집계한 이번달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는 전달에 비해 1.4포인트 하락한 90.8로 집계돼 시장 예상을 하회. 이는 이번달 들어 미국과 이란 사이 공습이 이어지고 호르무즈에 이어 홍해까지 봉쇄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국제유가가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 다만 지난 주말 미국과 이란이 양측에 대한 군사적 공습을 멈춘 가운데 일단 재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날 이스라엘 내부 언론은 미국과 이란이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여겨진 종전 양해각서(MOU) 복구를 위한 방안에 근접했다고 보도. 이에 국제유가는 이날까지 3거래일 연속 하락해 WTI 기준 배럴당 80달러를 재차 하회. FOMC의 통화정책 결정을 앞둔 가운데 빠르게 안정되고 있는 국제유가는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다만 뉴욕타임스는 현재 이란이 미국에 대한 공습을 멈췄음에도 대화에 나서려는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주요 교량과 발전소를 쉽게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여전히 상황은 양 방향으로의 진전 가능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여전히 양측이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판단이 우세하지만 그럼에도 그 과정에서의 진통은 단기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시할 필요는 있음.

FOMC 시작..트럼프 “금리 인하해야”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이틀간의 일정으로 시작한 가운데 마침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있는 점은 선물 시장에서의 이번달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베팅을 낮췄고 이는 국채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 다만 여전히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한 전망은 엇갈림. 대체로 이번 회의에서의 금리 동결과 함께 이후 인상을 예고하는 다소 매파적인 톤의 발언이 덧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시각도 적지 않음.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데니는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25bp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 노동시장이 완전 고용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AI 투자 확대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관세 정책 등이 인플레 압력을 지속시키고 있다는 분석. 시타델 증권 역시 25bp 금리 인상이 이번 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8~12% 성장할 자격이 있다며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함. 그는 미국이 높은 금리를 유지한 덕에 다른 국가들이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었다며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가져가야 한다고 덧붙임.

특징종목

유가 급락으로 에너지 섹터가 1.4% 하락했으며 반도체주 중심의 기술주 약세로 정보 기술 섹터도 1.17% 크게 하락. 다만 여타 업종군으로 매기 확산이 이어져 헬스케어 업종이 2.33% 상승했고, 필수소비재 1.96%, 소재 1.66%, 통신서비스 1.64%, 금융 1.18% 등 대부분 업종군이 고르게 상승.

반도체주에서 이탈한 자금이 금융, 헬스케어, 필수소비재 섹터 등으로 유입되는 전형적 순환매 양상이 나타남.

반도체주 투자심리 냉각

전장 큰 폭 하락 이후 아시아장에서도 이어진 반도체주 급락세의 여파를 고스란히 이어받아 이날 미국증시에서도 반도체주는 하락세를 지속.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4.49% 하락해 지난 5월 중순 이후 저점을 경신했으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8.85%), AMD(-8.15%), 인텔(-5.86%), 퀄컴(-4.21%), 마벨 테크놀로지(-7.77%),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7.82%), 램 리서치(-7.54%), KLA(-6.18%), 시게이트 테크놀로지(-8.53%), 웨스턴 디지털(-6.91%), 델 테크놀로지(-8.15%), 샌디스크(-14.25%) 등의 대부분 종목이 동반 하락.

미국 대형 특수유리 및 광통신 소재 기업 코닝(-12.10%)은 2분기 호실적에도 3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시장 전망을 하회한 영향으로 급락했으며 코히어런트(-10.31%), 루멘텀 홀딩스(-8.43%) 등 광통신 관련주 전반이 큰 폭 하락.

코어위브(-4.93%)가 AMD(-8.15%)와 최대 2.5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 협력 소식에도 하락했고 이외 IREN(-6.50%), 네비우스(-9.68%) 등 네오 클라우드 업체도 동반 하락.

다만 반도체 테스트 장비 회사 테라다인(-4.22%)은 마감 이후 발표한 전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았고 현재 진행 중인 분기 가이던스도 컨센서스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제시해 시간외 거래에서 10% 내외 상승.

빅테크 강세: 애플 '왕의 귀환'

애플(+0.94%)이 미국 내 애플 스토어 온라인과 애플 스토어 앱,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기기 리스 프로그램인 '애플 업그레이즈'를 출시. 이는 아이폰과 애플워치 맥, 아이패드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리스 기간은 12개월에서 36개월까지 기기별로 상이. 애플은 여타 빅테크 대비 지지부진했던 AI 관련 투자와 성과가 막대한 투자에 비해 저조한 수익이 위험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재 시장 분위기 안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돼 상대적 강세를 지속하고 있음. 최근의 상승으로 엔비디아를 제치고 시총 1위 자리를 재 탈환했으며 이날은 특히 장 중 최고가에서 시가총액 5조 달러를 사상 처음으로 돌파. 시총 5조 달러 돌파는 앞선 엔비디아에 이어 두 번째.

메타 플랫폼스(-0.08%)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3.33%)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140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기로 했다고 밝힘. 합작법인 지분은 블랙록이 관리하는 펀드가 80%, 메타가 20%를 각각 보유하게 되며 구축 비용 약 140억 달러는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메타는 향후 완공된 데이터센터 전체를 임차해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 메타가 데이터센터를 직접 보유하지 않는 방식을 택한 것은 결국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임.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계약에 따라 메타가 임차하게 될 미국 텍사스주 엘패소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채권 125억 5,000만 달러 어치가 전일 연 7.5%의 금리로 발행됐다고 보도함. 이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에 비해 약 2.875%p 높은 수준이며 기존 비슷한 사업과 관련해 발행했던 채권에 비해서도 약 0.5%p 높게 책정됨.

엔비디아(+0.25%)는 젠슨 황 CEO가 미국 상무장관과 중국 수출 규제 관련 회동을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여타 반도체주 하락과 달리 소폭 상승 마감. 이외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은 차세대 모델 개발을 위해 엔비디아 블랙웰 GPU의 추가 확보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알리바바(+0.17%) 역시 블랙웰 기반 대규모 AI 모델 학습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짐.

테슬라(-0.58%)는 KKR의 지원을 받고 있는 애리조나 소재 태양광 및 배터리 저장 프로젝트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음. AI 데이터센터 확장이 미국 전력 시장을 고강도로 압박하는 가운데 전력 구매 계약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방증.

구글(+2.19%)은 Docs에 제미나이 기반 협업 기능을 추가했다는 소식이 있었던 가운데 오름폭을 확대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1.09%)도 소프트웨어주 전반의 강세와 함께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상승.

방향키는 '실적'

페인트 제조사 셔윈-윌리엄스 컴퍼니(+8.25%)가 다우지수 구성 종목 중 가장 크게 상승. 전 사업 부문의 고른 성장에 힘입어 전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 연간 매출과 EPS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

보잉(+4.76%), 에어포스원 교체 사업에서 2억 8천만 달러 비용을 반영해 시장 예상보다 큰 분기 손실을 기록. 다만 실적 회복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보이며 잉여 현금 흐름은 플러스를 기록, 주가도 강세.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2.54%)는 실적이 예상을 상회했지만 현재 진행 분기 실적 전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여파로 하락. 회사는 중동 지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해당 지역의 객실 당 매출이 전년 대비 30% 급감하는 등 타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

대형 크루즈 선사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5.72%)는 전분기 깜짝 실적에 더해 연간 EPS 가이던스를 상향한 영향으로 강세. 예약 수요가 증가했으며 비용 효율화 작업도 함께 진행한 영향이 실적에 긍정적으로 반영됐다고 설명.

코카콜라(+5.00%), 월드컵 특수에 힘입은 기대 이상 전분기 실적에 연간 실적 가이던스 상향한 영향으로 강세. 코카콜라의 제로 슈거 탄산음료는 미국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비필수 품목에 대한 지출이 전반적으로 둔화하고 있음에도 견조한 수요를 유지해왔음.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포드(+1.91%)는 전분기 합작법인 처분 비용 등을 반영해 순손실을 기록. 다만 핵심 사업의 견조한 성과를 바탕으로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한 영향으로 시간외 거래에서 상승.

이외 특징주

페이팔(+3.80%)이 비용 절감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연간 이익 가이던스를 상향. 앞서 페이팔은 스트라이프와 사모펀드 어드벤트 인터내셔널로부터 주당 60.50달러에 인수 제안을 받았던 바 있으며 페이팔은 총 530억 달러 규모의 이 인수 제안이 '저가 제안'이라 판단하고 있음. 다만 이번 인수 제안으로 회사 가치에 의문을 갖는 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난만큼 이 의심을 지우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

비자(+0.08%)는 AI 도입을 통한 구조조정과 성장 분야 재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강세.

글로벌 종합 물류 수송 기업 UPS(-6.20%)는 전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 상회했고 연간 실적 가이던스도 상향했지만 내수 배송 물량 축소 우려와 차익 실현 매물 영향에 하락.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국제유가 3거래일째 하락

국제유가가 3거래일 연속 하락. 미국과 이란이 상호 공습을 중단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사실상 무효화됐던 종전 양해각서(MOU)를 복구하는 방안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유가는 낙폭을 확대함. 이날 이스라엘 매체는 호르무즈 해협에 인접한 이란과 오만은 중재안에 대한 승인 의사를 밝혔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만 남은 상황이라고 전함.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4.06% 하락한 배럴당 79.26달러로 마감해 배럴당 80달러를 하회했고, 브렌트유 9월물도 5.21% 하락한 배럴당 84.09달러에 마감. 국제 금가격은 미 국채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FOMC를 앞둔 경계감에 1% 내외 하락.

국채금리 3거래일 연속 하락

3거래일째 이어진 유가 하락과 맞물려 미 국채금리도 3거래일 연속 하락. 이날 공개된 콘퍼런스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7월치가 소폭 하락한 것도 국채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 FOMC가 이날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회의를 시작한 가운데 이번달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베팅은 오히려 낮아짐.

2년물 국채 금리는 3.5bp 하락해 4.2871%를 기록했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4.3bp 하락한 4.6062%를 기록. 30년물 국채 금리는 4.8bp 하락한 5.0886%를 기록.

특히 WTI가 배럴당 80달러를 내주며 낙폭을 확대하자 30년물 금리는 5.10% 선을, 10년물 금리는 4.60%선을 소폭 하회하기도 했음.

시카고 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이번 FOMC에서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30% 초반대로 낮췄으며,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70% 후반대로 전장 대비 하락함.

달러 나흘만에 약세 전환

미국 달러 가치는 4거래일만에 하락으로 돌아섬. 중동발 긴장 완화 기대감에 미국 소비자신뢰지수가 다소 부진했으며 FOMC의 기조가 예상보다 온건할 수 있다는 전망 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0.14% 하락한 101.395를 기록.

달러-원 환율(원화 강세)은 전일 한국 증시에서의 외국인 대규모 매도와 큰 폭의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서울외환시장 주간 거래에서 6.0원 하락, 종가 1,462.50원를 기록.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0.20원)를 감안시 10.10원 하락한 1,452.20원을 기록.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